

호황에 되살아난 집값 상승 기대

단상



박근중

반도체 기업의 역대 성과 급과 주식시장 투자 수익이 다시 부흥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간신히 놀러오는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들쭉날쭉 가능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수도권과 중남부 집값 상승 기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집값 급등기 수준으로 되돌아간 실정이다. 주택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기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적색 경고신호가 아니다. 정부는 공급·세제·대출 전방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야 한다.

최근 집값이 상승한 데는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으로 넘쳐나는 부동산 시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자수익과 1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인공지는 수요에 따른 반도체 특수가 내년, 길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는 어렵다. 문제는 집값 상승 기대가 고착화(固着化)되면 주택시장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가격을 높이거나 매물을 거두고, 무주택자는 불안과 공포에 빠져 불안과 공포에 빠져 두려움에 집을 사는 패닉 바이잉(Panic buying, '공포 구매')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다음 달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정부는 과감하고도 실효성 있는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에서 비롯한 집값 급등세가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밸류 효과 때문이다. 경기 화성 동안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6년 6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른 올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10% 상승했고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0.10% 상승했다. 특히 경기 화성 동안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다. 삼성전자의 거액 성과급 지급과 5

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힘입은 유통성이 2주 만에 집값을 3억원까지 끌어올린 사례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주택세 세급 감면 혜택 축소 등을 담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라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하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급 부담은 임대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개별 유념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중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15일 기준으로 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30% 상승을 기록해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전주 대비 0.27% 상승보다도 웃돈다. 월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종합임대가격지수 변동률도 지난 5월 기준 서울을 월세 가격지수는 0.81% 증가한 규모 및 주요 단지·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월세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다독이고 부동산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만 한다. 금리 인상과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요가 풀리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인지에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어야만 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신중을 해야만 한다. 현실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재개 이후 시장 불안도 더욱 가속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빠져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李,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넘어 '데드덕'



아침 햇살 고하승 주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선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조사가 24일에 또 나왔다. 특히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부정평가가 50%대를 돌파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경권 인콰에선 최희생 부총리 "코미디"와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글리서치'가 '쿠기뉴스'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 51.9%, "잘하고 있다" 45.2%, "잘 모르겠다" 3.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7%p,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에서 앞선 것이다. 반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27.4%, 국민의힘 27.4%,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관계에서 당의 입장이 세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주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당권 유

력 주자인 정경래에 이어 김민석마저 "완전제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당부를 외면한 것은 그래서다. 실제로 정경래는 물론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감사와 재판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 총리는 정경래 대표처럼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권만 당권 당파 주자들이 '데드덕'에 걸리면 대통령의 당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지금쯤 이재명 대통령은 정경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라고 한 말을 곱씹고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권력의 무상함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앞길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이야 정동혁 체

제를 제야당의 거들떠 '폴백'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밀리고 있지만, 조만간 체제를 정비하고 채신의 길로 나아간다면 정당 지지율 역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가 민주당의 골목을 재확장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호 데드라인에 맞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며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상적인 의석 비율(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을 넘어 상임위원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까지 열어야

한다. (본문에 인용된 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 3.1%, 무선 ARS 96.9% 혼합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고

진화하는 신종 사기, 예방이 최고의 백신이다.



이유정

경기 부천시경찰서 범죄예방팀과

최근 사기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비대면 사기 범죄였다면, 이제는 노쇼(No-Show) 사기, 팀미션 사기, 연애방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대상 또한 특정 계층이 아닌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쇼 사기는 음식집이나 속

박업소, 남동업체 등에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을 가장해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나 공공기관 직원, 기업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다. 실제 예약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와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팀이 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단한 온라인 설문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한 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인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 지급해 신뢰를 쌓지만 이후 고액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연애 방자 사기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장기간 친밀감을 형성한 후 투자, 사업, 치료비, 항공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와의 결합형 형태까지 등장하며 피해자의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신종 사기의 공통점은 사함의 신뢰와 호감을 악용한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접근하고, 그럴듯한 상황을 연출한다. 결국 사기 예방의 핵심은 '확인을 습관'에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지원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면 범죄 예방의 추가 인출을 차단하여 고액 확신을 받고 피해를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이후의 조치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 은

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의 금융 요구,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한 물품 구매 요청,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며, 특히 급하게 송금이나 입금을 요구할 경우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범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확인하기', '한 번 더 의심하기', '즉시 신고하기'라는 기본 원칙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종 사기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관심과 경계심이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전화: 0213676-2114 | 구독신청: 022926-0217

편집국: 0213676-2114 | FAX: 021762-8223

정치·행정부: 021765-8115 | 경제·문화부: 021926-0392

사회·수도권부: 022926-0314 | 편집부: 022926-0242

총무국: 022926-0217 | 영업국: 021926-0164 | FAX: 021762-8223

광고문의: 021926-0164 | 윤리팀: 032675-7956

www.siminilbo.co.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09(여의도, 국동VIP빌딩 6층) |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경남 우수 브랜드 쌀'

4년 연속 수상

영호진미 합천쌀

영호진미 합천쌀은 4년 연속 수상된 '경남 우수 브랜드 쌀'입니다. 맛과 영양을 겸비한 최고의 쌀입니다.